

기본급 142,300원 인상!
퇴직한 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보장!
지부 재정자립기금 현실화!



지부교섭 속보

1호

2022.04.14(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박종우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2022년 지부교섭 원칙 합의



순조로운 교섭 기대한다

2022년 지부교섭이 시작됐다. 올해는 3개사(한온사내하청, 이텍네트웍스, 이텍산업)가 지부교섭에 추가로 참여했다. 노사는 4월 14일(목) 15시 한온시스템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상견례에서 교섭 원칙에 합의했다. 박종우 지부장은 “첫 날부터 어느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된 상태라 반갑지만은 않다. 지난 2년간 어려웠는데 올해는 순조로웠으면 좋겠다”며 원만한 교섭을 당부했다.

- 사회 : 노사 윤번제로 진행
- 서기 : 노(임성우 교섭부장), 사(한온 송연호 전임)

2022투쟁 승리! 지부 전진대회 개최

지부는 상견례 전 13시 대전노동청에서 전진대회를 열었다. 지부 확대간부 130여명이 모여 부당노동행위 OUT! 민주노조 탄압 중단!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2022투쟁 승리!를 함께 결의했다.

발언자로 나선 한온시스템대전지회 김필수 사무장과 한국타이어지회 김용성 지회장은 현장 상황을 전하며 올해 교섭 승리를 다짐했다. 또한 사업장 내의 투쟁만이 아니라 지부, 금속노조, 민주노총과 함께 지역, 전국적인 연대 투쟁을 함께 만들겠다는 결의도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 임기 시작 전부터 반노동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어떤 정권도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정권은 없었다. 2022년도 금속노조 답게 투쟁하는 한 해를 만들자.

<교섭원칙>

1. 교섭장소 : 각 사업장 순회.
(한온→보쉬→대한이연→JCC→코스모링크→KDK→유수물류→리텍)
2. 교섭 개최 : 매주 목요일 15시 00분
3. 교섭 위원 : 각 사별 임원급을 포함한 2인 이상
4. 교섭 운영 원칙
 - 교섭성원 : 8인 이상 참석 (각 사별 1명 이상)
 - 간사 : 노(정성훈 사무국장), 사(한온 원유호 상무)

1차 교섭 (상견례) 속기록

부당노동행위 등 시작부터 반갑지만은 않다

노 :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노사 모두 건강하게 봐서 반갑다. 오늘 첫 상견례인데 어느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발돼있다. 이 자리가 반갑지만은 않다. 지난 2년간은 어려웠는데 올해는 순조롭게 교섭이 원만히 마무리되면 좋겠다.

사 : 오늘 모두발언을 한온시스템이 대표로 하셔야 하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JCC가 대신하겠다. 지부요구안은 간단해보이지만 교섭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한발 한발 양보하면서 슬기롭게 하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건강 유념하면서 교섭하자.

사회 : 오늘은 교섭원칙 논의하겠다.

노 : 교섭원칙 관련해서 사용자도 사전에 논의하신 걸로 들었다. 교섭장소에 대해 사측은 한번 사업장별로 순회하고 한온에서 계속 하자고 제출하셨는데 지부는 현장 활동이 필요해서 계속 사업장을 순회하는 걸로 요청드렸고 사측도 동의하셨다고 들었다. KDK는 장소가 협소하고 교섭하기 어렵다보니 2회차부터 다른 장소로 하는 걸로 협조할 수 있다. 유수물류는 집단교섭에서 처음 들어왔는데 한온시스템 대전공장 내부 업체라 순번은 그대로 두고 그때는 한온에서 장소 제공을 협조해주시면 좋겠다. 교섭시간은 15시로 하고 필요시 변경하는 걸로 하자. 교섭위원은 신규로 이텍산업, 이텍네트웍스 한온사내하청이 추가되어 총 9개사가 되어야 하나 이텍산업과 이텍네트웍스는 사용자가 하

나인 걸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사측 교섭위원은 하나로 합치는 걸로 지회와도 논의했다. 교섭성원은 각 사별 1명 이상 참석하는 걸로 8명으로 하자. 아래 세부사항은 원안대로 하고 사회 (회사 : 보쉬 / 조합 : 한국JCC지회 박진순 사무장). 서기 (회사 : 한온시스템 송연호 전임 / 조합 : 임성우 교섭부장) 정하자. 차기 교섭 때까지 회사별로 대표이사 위임장 제출해달라. 노조 위원장 위임장도 차기 교섭 때 전달하겠다. 수정 보완 필요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셔라.

사 : 동의한다.

노 :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한온, 대한이연, JCC인데 한온과 대한이연이 잘 협의가 안되고 있다. 빠르게 중앙교섭 참여하는 걸로 정리해주시길 바란다. 노조는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이 3개 밖에 안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3개 사업장 중에 빠져나가는건 또 다른 문제다. 한온은 회비 납부를 안해서 자동 탈퇴 처리되었는데, 올해 3월까지 해결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됐다. 이미 중앙교섭 시작했으니 4월 안에 해결하셔라. 대한이연도 회비 납부 안했는데, 중앙교섭 탈퇴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지부와 원활했던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부교섭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 이번달 안에 꼭 마무리하고 차기교섭에서는 해결하고 봤으면 좋겠다.